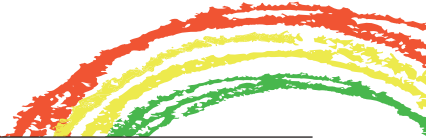


# 소아암·1·1등의 선샤인 프렌즈



## Good Morning Everybody

- 04** 인사말씀 (최병철 감사/국립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 Good Morning Family Event

- 06** 2020 신년회 - “2020년의 특별한 기억 최고의 만찬”  
**08** 2020 온라인 송년잔치 - “우리들만의 2020 언택트 송년잔치”

## Good Morning Sunshine Friends

- 10** 천사유치원 - “천사들의 소중한 나눔”  
**12**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 “한빛사랑하우스를 향한 사랑의 선물”  
**13** 함태현아버지, Elina Choi - “코로나를 막아줄 마스크 나눔”  
**14** 해피빈 - “해피빈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는 법”  
**16** 늘해랑프로젝트 - “굿즈로 전하는 따뜻한 응원”  
**18** 한살림재단 - “사랑을 전하는 생명박차”  
**19** 후원자이야기 - “오랜 치료의 행복한 마침표를 찍으며”  
**20** 본아이에프 - “본아이에프의 꾸준한 사랑 나눔”  
**22** 이삭희 -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이삭희의 따뜻한 마음”  
**24** 무주YG재단 - “진심으로 전한 YG의 나눔”  
**26** 한국기술사회 - “나눔을 실천하는 기술사들의 손길”  
**28** 서대문구도서관관리공단 - “나눔 더하기 나눔은 사랑”  
**30** 의료진이야기(장현진파트장) - “126병동과 함께하는 건강한 우리”



## Good Morning My House

- 32** 하우스 이용자 수기 (서은경 母) - “내 집처럼 편안한 하우스”  
**34** 하우스이야기 - “코로나에도 멈추지 않는 한빛사랑하우스”

## Good Morning Hanbit

- 36** 2020 한빛 NEWS  
**38** 2020 후원 NEWS  
**42** 2020 결산현황  
**43** 2020 후원자 명단  
**44** 2020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46** 후원안내 및 모집  
**47** 정기후원(CMS) 신청서  
**48** 포토에세이  
**49** 개인정보변경 및 이용신청안내



##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먼저 소아암NGO한빛에 인사를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한빛에 참여하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경력도 적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되지만, 감사의 마음을 더 크게 담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아암NGO한빛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약 3년 전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닮은 아이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던 절없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던 즈음 소아암NGO한빛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저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작은 재능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여 감사로 참여한게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아암NGO한빛에 참여하는 수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며 늘 따뜻함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소아암NGO한빛에게 더 큰 위로와 도움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3년이 흘러 저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려 왔던 작은아이가 곧히 자는 모습을 보며, 이제야 소아암NGO한빛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소아암NGO한빛에 함께하며 세상일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빛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세상은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 어루만지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힘이 닿는 곳까지 소아암NGO한빛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제 작은 재능으로 소아암NGO한빛이 그 어떤 단체보다도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임을 충실히 다 하여야 소아암NGO한빛에 참여하는 분들의 순수한 마음이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김현숙 이사님께서 지난 인사말을 통해 말씀하셨듯 ‘앞으로도 한빛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커다란 빛’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우며 응원하겠습니다. 소아암NGO한빛이 앞으로도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아암NGO한빛 감사  
국립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병철





2020  
소아암가족  
신년회

# 2020년의 특별한 기억 「최고의 만찬」

2020년은 온통 코로나에 뒤덮여 즐거웠던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설명절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는 평범했던 일상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막았고 과거의 그 일상들을 모두 그리운 추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우리 한빛의 식구들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진행된 신년회 ‘최고의 만찬’입니다. 2020년 1월 17일(금)에 진행된 두 번째 최고의 만찬의 사진을 보면 마스크도 끼고 있지 않고 사람들끼리도 가깝게 붙어 앉아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행운권추첨의 기회도 나누며 즐거운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20년의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던 그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언젠가 다시 최고의 만찬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즐거웠던 2020년의 그 특별한 기억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 우리들만의 「2020 언택트 송년잔치」



소아암NGO한빛에서는 '1999년부터 소아청소년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시작된 한빛사랑회의 성탄 잔치'를 매년 겨울마다 송년잔치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청객으로 인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이 어렵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아암NGO한빛은 온라인으로 송년잔치를 진행하면서 한빛사랑회 가족분들, 후원자분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록, 실시간이 아닌 녹화방송이었지만 서로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설렘을 안겨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송년잔치는 '소통'을 주제로 하였는데요, 한빛사랑회 가족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의료진, 이사님, 목사님, 재능기부자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한빛사랑회의 모든 가족분들 덕분에 이번 행사가 잘 진행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족 그리기'와 '장기자랑'은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서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소원을 모두가 함께 응원하며 값진 시간을 나눌 수 있었고 의료진, 기린아(소아청소년암 완치자)와 함께 나눈 대화의 시간은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한빛사랑회 가족분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함께 해주셨던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마음 덕분에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우리 모두가 얼굴을 보며 인사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소아암NGO한빛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 만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 또 만나요!  
모두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들, 소중한 정보들, 알찬준비,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린아 영상보는데 기특하고 대견하고 마음이 쫘하네요. 그 과정을 아니까~~ 모두모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린아님들 영상 두고두고 보고 싶네요. 올해 처음으로 참여 했는데 2021년 더욱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는 환우들의 체험담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소원도 읽어주시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리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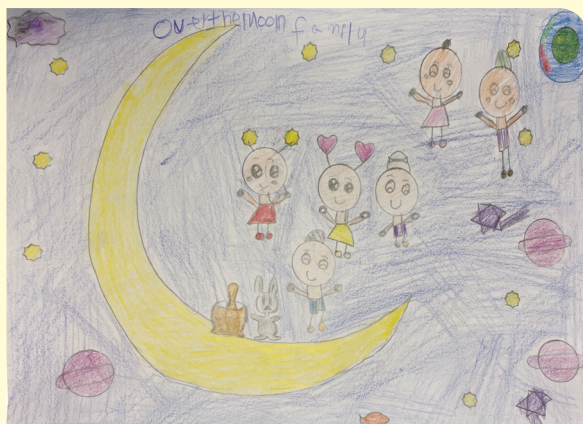
아이와 함께 영상 모두 잘 봤습니다. 교수님들, 기린아분들 들려주신 말씀 모두 다 가슴에 담고 힘내서 앞으로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게요^^



아이가 기린아 형님 누나들 영상을 보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아이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질문과 그에 대해 공감해 주시며 도움되는 말씀들이 많은 위로가 되고 뿌듯함도 되는 그래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이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저희 가족 모두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완치판정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꼭 완치하리라는 믿음이 생겼고 완치 후, 우리 아이도 기린아 언니,오빠들처럼 희망을 전달해주는 아이가 되길 바라며, 신촌세브란스 의료진들, 한빛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전해드려요.



## 재능기부

‘시간을 담다’ 캐리커처 이수연 작가, 김정자, 김영화, 김태호, ‘윤주영명상요가임상부요가센터’의 위한지도자

\* 2020년 언택트 송년잔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Q3. 나눔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소아암 친구들이 하루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낸 저금통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파서 약이 필요할 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실천한 나눔이 소아암 환우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나눔이 끼치는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에 대해 소개해 주었더니 더욱 뿌듯해하고 기뻐하였습니다.

### Q4. ‘나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웃에게 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것,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모두가 행복한 것, 음식을 나누는 것, 장난감을 나눠 쓰는 것,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흔히 성인들이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나눔의 의미와 다르게 유아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천적 의미로 나눔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Q5.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소아암 친구들아 우리의 나눔을 받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힘내!



후원이야기①  
천사유치원

## 천사들의 소중한 나눔

### Q1. 천사유치원을 소개해 주세요

천사유치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유아교육기관입니다. 우리 유치원은 유아, 교사,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유치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희망교육과 책임교육을 실시하여 사랑 가득한 유치원, 꿈과 희망이 가득한 유치원, 신뢰와 존경을 받는 유치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협력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Q2. 이번에 진행된 [2020 천사들의 사랑나눔]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천사유치원은 매년마다 고유의 나눔 실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가 주도적으로 나눔을 계획하고 실천함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직접 경험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며 서로 돕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활동은 ‘천사들의 사랑나눔’ 나눔저금통 모금활동입니다. 내가 갖춰야 할, 또는 실천하고 싶은 인성덕목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인성약속을 정하여 이를 지킬 때 마다 나눔저금통에 이웃을 위한 성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사랑나눔’은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공연 활동입니다. 유아 자신이 생각하는 재능 및 특기를 살려 재능기부 공연을 하고 이를 관람한 교사 및 교직원, 이웃은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 유아들을 격려하며 나눔성금을 기부하는 자선공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후원이야기②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 한빛사랑 하우스를 향한 사랑의 선물

소아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애쓰는 연세암병원 외래간호사팀 선생님들과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에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의 우리집 한빛사랑하우스에 귀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하우스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보니 10년이상도 거뜬히 사용하는 가전제품들도 수명이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우스의 필요를 알고 하우스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후원해주셔서 이번에 많은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김치를 더 맛있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찰지고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할 때에도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고 맛있는 빵도 구워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소중한 후원덕분에 하우스에서의 삶이 더 안락할 수 있게 되었기에 가족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삶까지 챙겨주신 그 귀중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빛사랑하우스에서도 보내주신 사랑이 가득한 선물 소중히 여기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래간호팀 후원물품 :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3구 하이브리드(인덕션), 냉장고, 무선청소기 2대, 광파전기오븐, 10인용 밥솥

\*국제팀 후원물품 : 3층 김치냉장고, 10인용 밥솥



## 후원이야기③

함태헌아버지,  
Elina Choi

# 코로나를 막아줄 마스크 나눔

2020년 1월 설명절이 끝날즈음 조금씩 나오던 불안했던 기사들이 현실화되면서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당장 접촉이나 공기중의 바이러스로 인해 치료방법도 없는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는 사람들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포심 때문에 500원정도면 살 수 있었던 KF 마스크의 가격이 10배가 갑자기 치솟으며 5,0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마스크쓰기마저 불가능해질까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너무 높아진 금액에 마스크 후원도 끊기고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도 없던지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그 때에 함태헌 환아의 아버지께서 여러번 재사용할 수 있는 면 마스크 100set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필요했지만 구하지 못해 힘들어했던 가족들과 한국인들보다 더 마스크 구입이 어려웠던 외국인 환자 가족들에게도 전해주니 눈물을 보일 정도로 감사해 하시며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또한 매년 겨울마다 한빛사랑하우스와 병원을 찾아와서 산타할아버지처럼 선물을 주시는 더메리프로젝트 유신형 대표님의 자녀분인 Elina Choi양이 하우스로 한 박스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미리 연락받은 것

이 없어서 뭔가 하고 열어보니 그 상자에는 소형마스크 10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스크선물은 작년 4월 16일에 하우스에 도착했는데 그때에는 마스크값이 한 장당 5천원이 넘는 시기였고, 소형 마스크는 더욱 구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소아암 아이들은 대부분 소형 마스크를 써야하는 걸 알고 안타까웠던 Elina Choi는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전부 소형 마스크를 구입한 뒤 우리 하우스로 보내준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도 소아암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은 계속 이어졌고, 그 사랑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언제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 이 시기를 떠올리면 힘들었던 기억도 있겠지만 따스했던 기억도 함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개발-  
해피빈 활동

# 해피빈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는 법



매년마다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면 당연한 마음으로 준비하던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소아암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1월에는 신년회, 5월에는

미니운동회, 8월에는 캠프, 12월에는 송년잔치가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이면 봉사자 어머님들이 하우스로 모여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고, 전을 부치고, 닭을 튀기며,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병원 밥에 지친 아이들에게 정성스런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하는 일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진 활동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나의 이유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시대에도 소아암 아이들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라도 전하고자 다양한 키트를 만들어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키트는 각각 다른 3개의 해피빈 모금함에 후원을



코로나키트  
(환아용)

코로나키트  
(의료진용)



놀이키트&엄마아빠키트



가을키트



추석키트

해준 5,446명의 네티즌 여러분 덕분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운동장에서 때론 넓은 바닷가에서 함께 했던 추억은 잠시 가슴속에 묻어두고 지금 현재 아이들이 있는 그곳이 가장 즐거운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은 고민 끝에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키트에는 마스크와 손소독겔, 향균티슈 등 위생용품을 넣었는데 특별히 병원에서 함께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키트도 만들어서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작은 정성이었지만 한번도 챙기지 못했던 의료진분들까지 해피빈 네티즌 여러분들 덕분에 챙겨드릴 수 있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했던 놀이키트는 혼자서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놀이감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만들기, 색종이, 큐브, 팔찌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오랫동안 고민하며 준비해봤습니다. 가을키트는 남자친구

들은 빨간 스포츠카, 여자친구들은 겨울왕국시리즈 레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키트는 2명 이상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준비하여 나눠주었습니다. 비록 전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선물밖에 없었지만 그 선물 하나하나에는 5,446명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세상이 아직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전히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또 그런 아이들을 격려해 준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큰 응원으로 다가갔던 점이었습니다. 치열한 병마와의 싸움 중에도 아이들은 무지개를 좋아하는 고래, 꿈꾸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 웃는 것을 좋아하는 별가사리 등을 그렸습니다. 이런 순수한 가르침이 <프로젝트 늘해랑>을 성공으로 이끈 주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늘해랑”은 늘 해처럼 밝은 사람이라는 뜻의 축약어입니다. 아이들의 따듯하고 순수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단 어라고 생각하여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작지만, 나는 그림 작가이고, 나의 작품은 지 친 어른들을 위한 힘이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어린이 작가님들께서 맘껏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 “나 는 사실, 그림작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존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봉사단]

“어린이 친구들에게 의학을 재미있게 전하자”라는 목표 아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 학 생들이 모여 늘해랑 프로젝트도 수행하며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마 주하게 되는 긴 대기시간과 입원 기간 동안 재미있는 Medical play(청진기 만들기, 주사기 로켓 만들기, 안경 만들기, 인체 장기 앞치마 만들기 등)를 통해 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병원에 대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Medical play 주제부터 교육내용 및 준비물까지 참여하는 어린이 친구들이 어 떤 것을 흥미로워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을 한단계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친 구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타인을 위한 마음을 가진 의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던 사이트 : <https://www.ohmycompany.com/reward/8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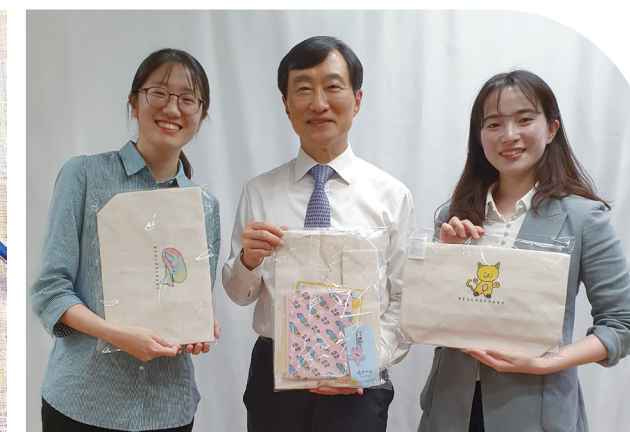
#### 늘해랑 작품/작가님들 소개



안녕하세요, <늘해랑>입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8명(구성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김소희, 강선영, 조원정, 김성은, 정주찬, 최은비, 유하연, 광예림 학생)으로 구성된 소모임으로, 2020년 유철주 교수님, 연 세암병원 병원학교 윤혜진 선생님, 그리고 소아암NGO한빛과 함께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늘해랑>은 연세암병원 병원학교에 재학 중인 환아들의 그림을 토대로 캐릭터를 디자인한 후, 굿즈(키 링, 파우치, 에코백, 스티커)로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환아들을 위해 기부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의 과대학 병원 실습을 돌면서, 성인에게도 힘든 치료를 견디며 하루 종일 심심해 보이던 아이들, 그리고 이를 지켜 보는 보호자님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직 학생일 뿐이기에 의학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작은 즐거움 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한 ‘어린이 작가님’들에게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선물하고, 소아 질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한편, 수익금 환원을 통해 환 아들의 진료와 치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과대학 학생들끼리 진행하다보니 처음 해보는 일도 많았고, 때아닌 COVID-19의 유행으로 우 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펀딩을 진행하며 놀라웠던 점은 일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그림이





후원이야기⑤  
한살림재단

# 사랑을 전하는 생명밥차



어린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거나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해본 분들이라면 한살림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살림재단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유기농 먹거리 매장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한빛사랑하우스에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위해 직접 구입해서 요리를 하실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한 먹거리 매장입니다. 그 한살림재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회공헌 활동 중 매달마다 사회복지단체를 선정해서 한살림상품권을 지급하는 생명밥차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단체가 2020년 8월 대상 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했는데요, 2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게 되어 가까이에 있는 연희매점을 이용하며 하우스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 주문을 받은 물품들을 구입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 식단에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위해 즐거운 고민을 하시며 재료를 고르고 요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한살림재단의 의미있는 선물 덕분에 한빛사랑하우스의 식사 시간이 더욱 뜻깊고 풍성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귀한 나눔으로 소아암가족들을 응원해 준 한살림재단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이야기⑥

# 오랜 치료의 행복한 마침표를 찍으며



따스한 봄햇살이 가득했던 4월의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소아암NGO한빛이지요. 후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단체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저희 아이도 소아암치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고가며 한빛을 알게 되었고 한빛사랑하우스도 이용을 했었어요. 오로지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병원의 의사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한빛을 통해 치료를 받는 동안 도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랫동안 우리 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저희 아이의 완치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해 나가야 하는 함께 병원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생각이나 가슴한켠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치료의 마침표를 다른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후원으로 하자고 가족모두 의견을 모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내 아이의 완치판정에도 여전히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생각이나서 맘편히 웃을 수 없었던 어머님은 아이의 오랜 치료의 행복한 마침표를 찍고자 다른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한동안 아무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치료의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 모두가 언젠가 우리 아이처럼 완치되어 더 이상 그늘 없이 밝은 곳에서 맘껏 웃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어머님의 간절한 소망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햇살처럼 환히 웃고, 때로는 원하는 걸 얻고자 떼를 쓰기도 하며, 공부에 스트레스도 받고, 친구들과도 해가질때까지 맘껏 뛰어노는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모든 소아암 아이들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후원이야기 ⑦  
본아이에프

## 본아이에프의 꾸준한 사랑 나눔



본그룹의 3개 법인 중 하나인 본아이에프와의 인연은 2009년부터 시작된 이후 식자재후원, 생월잔치 후원 및 재능기부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상품권지원도 매달마다 진행된 것이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이념에는 행복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창립부터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온 본그룹의 나눔은 그 깊이와 역사가 남다른 것입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단체라면 차별없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었습니다. 소아암 환아들과 가족들을 돕는 우리의 진정 어린 모습에 함께 동참하고자 본아이에프에서 보내준 후원의 손길이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환아와 가족들도 즐겨먹는 김치와 주식인 쌀, 치킨, 죽 등과 같은 식자재와 함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보내주셔서 하우스에 머무는 가족분들께는 식재료를 전달해 드리고,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가족분들께도 상품권을 통해 식사를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우스에서 소아암 아이들을 챙기다보면 혹은 병원에서 아이를 간병하면서 아이 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어머니와 아버님들도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내주신 나눔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매년마다 김장철이 되면 김장김치도 빠지지 않고 나눠주셨는데 올해에도 우리 단체를 선정해 주셔서 김장김치를 한가득 싣고 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우스에는 하루도 맛있는 김치가 떨어지지 않고 가족분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늘 친절한 응대와 미소로 맞아주시는 임직원 분들의 따뜻한 얼굴에서도 단순히 후원을 주고받는 기관끼리의 만남이 아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간의 온기를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아이에프에서는 한빛하우스가 3층을 리모델링 공사를 할때에도 사랑하우스를 매입하여 공사를 할때에도 후원금을 보내주시어 소아암 가족들의 하우스를 완성하는 일에도 빠짐없이 함께해주었습니다.

꾸준함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늘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소아암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본아이에프의 나눔을 보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아암가족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본아이에프의 깊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눠주신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소아암가족들이 위로의 힘을 얻었음에 모두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이야기 ⑧  
이삭희

##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이삭희의 따뜻한 마음



2019년 이삭희 후원 치료비지원 대상자 : 10명  
2020년 이삭희 후원 치료비지원예정 대상자 : 15명(예정)

감사합니다. 손내밀어주신 따뜻함으로 용기내어 나아가겠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만난 듯이 정말 많은 도움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소아암NGO한빛 관계자 및 이삭희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치료비지원 대상자 어머님-



이삭희는 이화여자부속유치원 학부모님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체로 우리 단체와는 2016년부터 인연이 시작된 이후 매년마다 소아암환아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대규모의 바자회를 열어 모임 회원 분들께서 직접 판매부스를 만들어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보내주셨습니다. 2020년에도 소아암 환자 치료비지원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터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결국 이삭희의 바자회도 진행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멈출수는 없었기에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기로 결정한 이삭희 회원분들의 열정과 사랑은 온라인 모금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67,609,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여 이번에도 전액 소아암 환아를 위한 치료비로 후원되었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을 향한 이삭희의 따스한 마음은 한번 불붙기 시작한 이후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2020년에도 큰 사랑을 모아준 모금 참여자분들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해 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삭희 회원분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보며 힘든 시기에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그 따스한 마음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삭희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소아암 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이야기 ⑨

무주YG재단

## 진심으로 전한 YG의 나눔



YG엔터테인먼트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계의 중심에 있는 기획사 중 하나로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꿈과 능력을 세계 곳곳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는 팬들로부터 받은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보다 전문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무주YG재단을 창립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후원을 계획하던 2020년에 해피빈재단의 추천으로 소아암NGO한빛을 소개 받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고 이후 무주YG재단, 해피빈재단, 소아암NGO한빛 3개 기관간의 사회공헌기금 운영 업무 협약을 통해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주YG재단에서는 2020년 8월에 데뷔한 12명의 YG엔터테인먼트의 대형 신인 트래저(TREASURE)가 참여한 해피빈 정기저금 '나눔을 향한 첫걸음, 작은 마음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를 통해 소아암 아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나눔이 이어질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YG재단에서는 이 정기저금함을 통해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주어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머무르는 한빛사랑하우스를 비롯하여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특별선물까지 준비되었는데 멋진 텀블러세트를 구입하여 무주YG재단에서 직접 디자인해준 스티커까지 붙여 소아암 아이들에게 멋진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병원과 하우스를 오가며 완치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한 뜻깊은 선물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와 아이들을 향한 진심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12명의 멋진 아티스트 트래저(TREASURE)와 무주YG재단의 모든 분들께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주YG재단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소아암 아이들이 머무는 한빛사랑하우스가 더 행복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완치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암과 투병중이라는 이유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유도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마음 하나로 많은 친구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언젠가 작은 방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갈 아이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 트래저(TREASURE) 멤버 중 도영의 인터뷰 중 -





후원이야기⑩  
한국기술사회

## 나눔을 실천하는 기술사들의 손길



기술사(技術士)란 공학(Engineering)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갖추고 현장실무에 적용하는 기술 전문가로서 엄격한 자격검정을 거친 자에게 주어지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한국기술사회는 1965년 설립되어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 및 환경 등의 보호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술사 직무 개발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재능기부 및 나눔활동이 2019년부터는 소아암NGO한빛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추석송편봉기 활동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12일에는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며 보다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MOU체결은 한빛을 통해 소아암 아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한 각종 봉사활동과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물품지원 등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 문화행사와 하우스 방문 봉사활동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소아암 아이들과 하우스에 필요한 물품후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마스크 4,500매 지원을 시작으로 하우스에 필요한 침구류, 물티슈, 살균제 등 소아암 아이들과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물품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나눔을 통해 소아암 아이들을 돕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연락을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을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보내주시는 한국기술사회 주승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보내며 한국기술사회와 함께 발전하며 만들어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술사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 나눔 더하기 나눔은 사랑



2020년 5월 소아암NGO한빛과 본격적인 나눔활동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기술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가능한 활동들을 알아봐주셨습니다. 그러다 소아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인 우리 한빛사랑하우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역이 중요함을 알고 하우스가 위치해 있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을 연계해 주어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전문기구들을 가지고 하우스 내외부를 한 달에 한번씩 방문해주어 하우스 전체를 소독해 주는 활동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전체를 돌 봐야 하는 바쁜 공단의 직원분들 이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방문해 주셔서 꼼꼼하게 하우스 구석구석을 소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소아암 가족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계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방역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하우스의 위생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우스에 계신분들께서도 전문기관에 의한 방역으로 인해 하우스의 안전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매년 방문해 주시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과 연계를 진행해 주신 한국기술사회 홍순명봉사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의료진이야기-  
126병동 파트장  
장현진

# 126병동과 함께하는 건강한 우리



2019년 9월 126병동 파트장으로 발령되었다고 들었을 때 중앙전문간호사, 암병원 교육간호사로서 경험이 있어 암병원 126병동이 낯설지 않았지만 소아 환자 경험이 없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화 패치 아담스, 마이 시스터즈 키퍼에서 보았던 소아암 환자들이 떠올랐고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하나 생각했었는데, 병동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회진할 때 잘 지내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보호자들과 지내다 보니, 잘할 수 있다고, 기운 내라며 응원하며 함께 웃고 있는 저를 어느 덧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COVID-19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세심히 챙겨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아이들과 눈높이에 맞게 바라보는 전공의 선생님들, 미국 소아혈액종양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갖춘 아동



전문간호사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간호사들과 함께여서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언제든 달려와 주시는 소아완화의료팀, 늘 도움 주시는 약무팀, 사회사업팀, 즐거운 병원생활을 만들어 주시는 병원 학교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행사와 기분 좋은 선물까지 챙겨주시며 소아암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까지 마련해주시는 소아암NGO한빛 선생님들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어벤저스팀으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항상 아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팀웍이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팀들보다 최고였습니다.

특히 아이들 걱정엔 노심초사 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긍정에너지로 충전하여 선배 부모님들께서 후배 부모님들을 끌어 주고 이겨낼 수 있다고 서로 보듬어 주고 힘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며 존경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멋진 그림을 그려 훌륭하게 작품을 게시하는 모습이나 당당히 대학에 합격하여 함께 기뻐하며 박수 쳤던 일, 어려운 치료도 씩씩하고 의젓하게 잘 이겨내는 아이들을 보며 오늘도 뿌듯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힘든 가운데 긍정적으로 치료 받고, 세심하게 서로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며 밤낮으로 고민하는 의료진들과 함께 밝게 희망의 미래를 그려가다 보면, 그 빛이 향하는 곳에 126병동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빛사랑하우스  
이용자이야기  
서은경 어머니



## 내 집처럼 편안한 하우스

평범했던 어느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쓰러진 아이의 상태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다음 날 아이가 백혈병인것 같으니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데려가 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출장 중이던 남편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이아빠에게 은경이가 백혈병인 것 같으니 빨리 서울로 가야 한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다시 검사를 해봐야 정확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였고, 지금 서울을 가도 의료파업 때문에 진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제천에서 가까운 원주에 있는 병원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원주의 병원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진료할 수 있다고 하여 코로나 검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내려와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고 하루가 얼마나 길던지.....

다음날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고 원주 기독교병원에 도착해 피검사를 하고 초조하게 앉아 있던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냥 빈혈일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와 저는 제발 별일 없기를 바라며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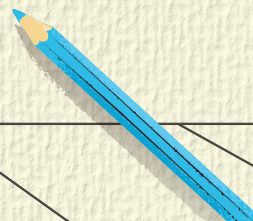
상황에 의료파업까지 겹쳐서 지금은 치료가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연결 해줄 테니 빨리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 아빠와 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오게 되었고 유철주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힘겨웠던 1차 항암이 끝나고 퇴원을 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던 저에게 코디 선생님께서 소아암 환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하우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퇴원과 함께 하우스를 이용하게 된 저는 이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식사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주방과 화장실,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방이 갖춰져 있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우스를 관리하시는 권사님께서 힘든 항암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어려운 아이에게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몸에 좋은 건강식으로 챙겨주시고 아픈 아이를 두고 마트를 갈 수 없는 저를 대신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날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권사님의 따뜻함이 아이를 집중해서 간호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픈 아이가 생기면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차량 운행으로 도와주시는 목사님 덕분에 걱정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엄마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때로는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된 저에게 이것저것 알아야 할 정보들도 알려주고 아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는 마음들이 있는 하우스가 아니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의 백혈병 때문에 낯선 서울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우스를 통해 만난 권사님의 따뜻한 도우심과 그리고 잘 견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진료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주시는 목사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이용하게 되는 많은 분들이 하우스를 통해 치료가 잘 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사님, 목사님 그리고 하우스 운영진 관계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교수님, 간호사님들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에도 멈추지 않는 한빛사랑하우스



2020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처음 들어본 낯선 이름의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에도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아암아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목숨을 위협하는 소아암과 코로나바이러스 모두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세상은 멈추고 말았지만 소아암 아이들이 계속해서 투병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한빛사랑하우스 또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에도 한빛사랑하우스는 하우스를 운영하며 소아암 아이들의 병원 밖 치료와 생활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달라진 점은 있었습니다.

- 1.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용자 확인 및 코로나검사 후 하우스 이용 권고
- 2.내부지침을 만들어 하우스에 오는 모든 가족들에게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
- 3.주보호자 외 하우스내 출입제한
- 4.거실 및 각 방마다 위생용품 비치 및 적극사용 권장
- 5.하우스 거주 이용자가족에게 마스크 정기제공

덕분에 한빛사랑하우스를 이용한 모든 소아암 가족들은 안전하게 하우스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협조하여 준 가족들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염려하고 걱정해준 병원의 의료진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하우스의 전통처럼 진행되었던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진행된 도시락나눔행사인 오후피데이가 2020년 1월을 마지막으로 진행이 중지 되었고, 하우스에 직접 찾아와서 진행되었던 자원봉사활동들도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이 활동들이 시작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모두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우스에 다시 모여 예전의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빛사랑하우스는 소아암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방안을 정리하고 교체해야 되는 식기구들은 없는지 살피고,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둘러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우스에서 편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늘 준비해둡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한빛사랑하우스는 언제든지 소아암가족들에게 편안한 집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우스에서의 하룻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 신규이용신청 : 연세암병원 소아암코디네이터 (02-2228-4277)





## 2020 한빛 NEWS



### 2020 제2회 신년회 「최고의 런치」

1월17일(금)에 청담동 명품 하우스 웨딩홀인 더클래스청담의 후원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신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달력만들기, 신년카드 작성, 행운권추첨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코로나키트 나눔

4월 21일에는 2월부터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아암환아와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위생용품을 포장한 코로나키트를 제작하여 나누었습니다.



### 한국기술사회 MOU 체결

5월12일(화)에 한국기술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소아암환아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전문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 및 마스크, 물티슈, 침구류 등 다양한 물품후원을 통해 지원을 통하여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한살림재단 8월 생명밥차 선정

8월에는 매달마다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하여 한 살림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한 살림재단의 생명밥차에 선정되어 2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아 하우스의 가족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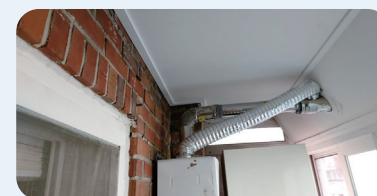
### 2차~4차 코로나키트 나눔

1차 코로나키트 나눔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해피빈의 모금으로 8월14일에는 놀이키트(놀이감세트)&엄마아빠키트(녹차세트)를 9월25일에는 추석키트(보드게임)를 10월30일에는 가을키트(레고)를 소아암환아를 위한 선물로 나누었습니다.



### 무주YG재단 사회공헌기금 약정진행

9월18일 무주YG재단과 해피빈재단, 소아암NGO한빛이 사회공헌기금 업무약정을 맺어 소아암환아를 위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3000만원의 후원금 전달 및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인 트래저의 정기모금함 개설을 통한 후원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 한빛사랑하우스 누스공사 진행

7~8월에 쏟아진 폭우로 무너진 한빛하우스 3층 천장과 3층 전체 도배, 사랑하우스 1층 주방 누수공사 및 전바적인 도배, 방수, 외벽도색공사를 진행하여 한빛사랑하우스를 더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한국기술사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연합 하우스 소독 실시

11월부터 시작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직접 한빛사랑하우스를 방문하여 소독방역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매월 1회 정기방문을 통한 소독관리를 진행하며 하우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 2020 언택트 송년잔치

12월24(목)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오프라인 행사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 송년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접수부터 큰 호응으로 함께 해준 소아암가족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도전에도 큰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준 여러분 덕에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년 온라인 행사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 2020 후원 NEWS



### ‘세브란스신협협동조합’ 명절 나눔

2016년부터 세브란스신협협동조합에서는 모아진 물품을 1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에 맞춰 하우스로 물품기증을 해주셨습니다. 2020년에도 1월 13일과 9월 28일에 후라이팬, 그릇세트 등 하우스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보내주셔서 한빛 하우스와 사랑하우스에 나눠드렸습니다.



### ‘코코스타’ 면마스크 100set 후원

2020년 2월 26일에 함태현 환아 아버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코코스타에서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면마스크 100set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마스크가 필요했던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임선우 후원자’ 마스크 415장 후원

9월1일 임선우후원자께서 한빛사랑하우스로 비말, 소형, 대형 등 마스크 415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보내준 마스크는 하우스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보조자인 가족분들께 잘 전달하였습니다.



### ‘한국기술사회’ 침구류, 마스크 등 물품후원

2020년 5월 MOU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국기술사회에서 7월 11일 이불 및 침구류와 10월 24일 마스크(2500매), 물티슈(220개), 살균제(60개)를 후원해주어 한빛사랑하우스내 이불교체 및 물품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 ‘태랑세랑마켓’ 손소독겔 휴대용 케이스 후원

5월 28일에 태랑세랑마켓에서 휴대용 케이스 120개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손소독겔 휴대용 케이스는 병원과 하우스에서 소아암 치료중인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 ‘노유진, 예준, 정태은 어머님’의 소형마스크 나눔

3월 13일에 소아암치료중인 아이의 어머님 두 분과 지인 한 분께서 소아암치료중인 아이들을 위해 소형마스크 30장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시기에 보내주신 마스크 감사합니다.



### ‘최수연 어린이’ 수제마스크줄 100개 후원

9월 24일에는 현재 소아암치료중인 최수연어린이가 함께 치료중인 다른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마스크줄 100개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 코로나도 소아암도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응원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김장김치 등 나눔활동

구로구에 위치한 궁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김선화)은 8월27일 화장품 14box, 9월22월과 12월 1일에 김치 25box를 후원해주었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에 있는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선물을 보내주신 궁동복지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본아이에프’ 생필품, 식재료, 김장김치 나눔

2009년부터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소아암가족들을 돕기시작한 본아이에프는 매월 식재료 및 상품권 후원 외에도 9월11일 생필품과 11월12일 식재료, 12월1일에 김장김치 후원을 통해 나눔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아암가족들을 위해 나눔을 진행해 준 본아이에프 최복이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톤(Ton)28’ 비누세트 50개 후원

11월13일 한국조형물세포은행협회를 통해 천연비누를 만드는 톤28에서 비누세트 50개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저자극 천연비누는 소아암 아이들이 쓰기에 도 너무 좋아 하우스에 머무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마스크 등 후원

10월21일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소아암환아를 위한 마스크(30개) 30set와 믹싱볼세트를 후원해주었습니다. 하우스의 아이들과 가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들과미래재단’ 히크만주머니 100개 후원

11월27일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소아암아이들이 사용하는 손으로 직접 만든 히크만주머니 100개를 후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면소재로 한뼘한뼘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소중한 후원품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 ‘더메리프로젝트’ 생필품 및 크리스마스선물 후원

12월1일에는 매년 겨울마다 산타할아버지처럼 하우스를 방문해서 선물을 주고 가시는 더메리프로젝트팀이 올해에도 방문하여 하우스에서 사용할 다양한 생활용품들과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선물 100개를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주셨습니다.



### ‘Elina Choi’ 소형 마스크 100장 후원

2020년 4월 16일에는 더메리프로젝트 유신형대표님의 따님인 18세 Elina Choi양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용을 모아 소형 마스크 100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마스크를 전달받은 아이들과 어머님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습니다.



### ‘유신형대표(더메리프로젝트) 중형 마스크 100장 후원

5월7일 한참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때 더메리프로젝트 유신형대표님께서 중형마스크 100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중형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보내주신 마스크를 청소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소아암재단’ 생필품 및 위생용품 등 후원

한국소아암재단에서는 매년마다 다양한 후원물품을 우리 단체로 보내주십니다. 쌀, 생활용품, 된장, 위생용품, 물티슈 등 하우스에서 필요한 용품들과 마스크 등 소아암가족들에 필요한 물품들과 함께 과자, 장난감 등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물품들도 넉넉하게 보내주십니다.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귀한 나눔을 해주시는 한국소아암재단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 ‘연세의료원’ 연말성금 소아암환아 위해 후원

1월23일 연세의료원 원목실에서 2019년 성탄예배 헌금중 4,007,500원을 소아암환아를 위해 후원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소아암환아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늘해랑프로젝트’ 굿즈수익금 전액 후원

6월5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체에서 결성된 늘해랑프로젝트에서 소아암환아 작품 굿즈판매로 인한 수익금 3,200,000원을 전액 후원해 주셨습니다.



### ‘이삭희’ 온라인 모금통한 후원금 소아암환아 치료비로 후원

12월8일 이화여자부속유치원의 학부모 봉사단체인 이삭희에서 온라인 바자회를 통한 모금활동으로 모아진 수익금 67,609,000원을 소아암환아 치료비를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 ‘연세미래지도자클럽’ 소아암환아 위해 후원

12월21일 소아암NGO한빛의 주인기 이사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연세미래지도자클럽에서 소아암환아를 위해 2,0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강민성후원자’ 소아암환아 치료비 후원

12월15일에는 특별한 후원자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치료중인 강민성 후원자께서 병원을 다니면서 보게 된 소아암 환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500,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봉사단’ 키트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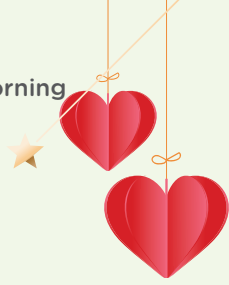
9월3일과 12월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빛사랑하우스에 있는 환아들이 방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키트 20개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키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롯데호텔 롯데면세점’ 임직원 헌혈증 130장 후원

9월2일에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헌혈증 130장과 예코백 등 선물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헌혈증이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 결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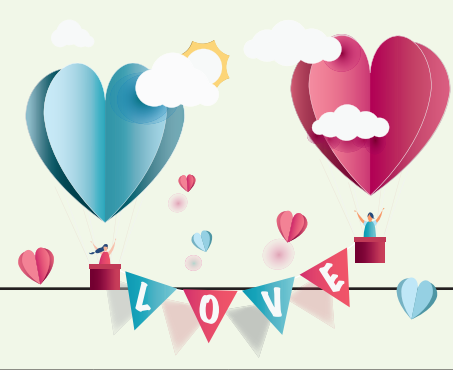
(2020.01.01~2020.12.31)

| 42

계정과목	결산액	계정과목	결산액
<b>세입</b>		<b>세출</b>	
1. 전년 이월금	454,014,428	1. 소아암 NGO 한빛 사무국 운영	
1. 전년이월금 소계	<b>454,014,428</b>	1) 인건비	
2. 후원금 수입		1-1) 급여 및 수당	49,972,330
1) 정기후원		1-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6,000,000
1-1) CMS후원	67,473,585	1-3) 사회보험부담금 및 지방세	6,412,590
1-2) 개인 계좌이체 후원	39,960,000	1) 인건비 소계	<b>62,384,920</b>
1-3) 단체 계좌이체 후원	9,820,000	2) 운영비	
1) 정기후원 소계	<b>117,253,585</b>	2-1) 차량관리 및 유지비	1,536,330
2) 특별후원		2-2) 물품구입비	4,929,990
2-1) 하우스 이용자 후원	40,610,000	2-3) 여비교통비	385,400
2-2) 해피빈	113,916,200	2-4) 수용비 및 수수료 (우편,택배,주차 등)	1,118,695
2) 특별후원 소계	<b>154,526,200</b>	2-5) 기타 운영비	680,764
3) 지정후원		2) 운영비 소계	<b>8,651,179</b>
3-1) 치료비지원	71,252,820	3) 홍보	<b>4,821,146</b>
3-2) 진료상담프로젝트	100,000,000	4) 자원개발 및 관리	<b>11,690,090</b>
3) 지정후원 소계	<b>171,252,820</b>	1. 소아암NGO한빛 사무국 운영 소계	<b>87,547,335</b>
4) 비지정후원(개인)		2. 한빛사랑하우스운영(소아암센터)	
4-1) 비지정 개인후원	17,310,100	1)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4-2) 비지정 단체후원(기업,재단)	12,352,700	1-1)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33,293,312
4) 비지정후원(개인) 소계	<b>29,662,800</b>	1-2) 정수기렌탈요금	922,400
2. 후원금 소계	<b>472,695,405</b>	1-3) 가스요금	4,593,020
3. 잡수입		1-4) 방송수신요금	422,400
1) 이자수입	260,636	1-5) 방역요금	1,565,000
2) 기타잡수입	0	1-6) 전기요금	4,466,120
3. 잡수입 소계	<b>260,636</b>	1-7) 수도요금	1,013,680
세입합계	<b>926,970,469</b>	1-8) 인터넷 및 전화요금	656,000
세입합계(전년이월금 제외)	<b>472,956,041</b>	1-9) 시설개보수비	9,100,000
		1-10) 재산세	868,620
		1)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소계	<b>56,900,552</b>
		2)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2-1)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6,152,452
		2-2) 정수기렌탈요금	535,600
		2-3) 가스요금	2,061,040
		2-4) 방송수신요금	315,090
		2-5) 방역요금	1,272,000
		2-6) 전기요금	910,290
		2-7) 수도요금	641,750
		2-8) 인터넷요금	248,280
		2-9) 시설개보수비	3,000
		2-10) 재산세	1,499,070
		2)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소계	<b>13,638,572</b>
		2.한빛사랑하우스운영 소계	<b>70,539,124</b>
		3. 자산취득비	<b>350,000,000</b>
		4. 치료비지원사업	<b>62,505,858</b>
		5.소아암환아지원사업	
		1) 완치지원사업(기린아&꿈드림)	0
		2)소아암가족지원사업	10,203,976
		5.소아암환아지원사업 소계	<b>10,203,976</b>
		6. 잡지출	250,000
		7.차기이월금	345,924,176
		7.차기이월금 소계	<b>345,924,176</b>
		세출합계	<b>926,970,469</b>
		세출합계(차기이월금 제외)	<b>581,046,293</b>

# 2. 후원회원

(2020년 1월~12월)



| 43

## 1. 정기후원회원

5천원	강미영, 강영린, 김순호, 김윤영, 김은채, 김희은, 박정순, 배정임, 변미라, 이선희, 이수진, 이희경, 조미영, 조은희, 한유영		
1만원	강나영(이순애), 강보성(강성진), 구본미, 권수영, 권영준, 김정미, 김경민, 김경숙, 김두진, 김병천, 김선정, 김양현, 김영숙, 김정은, 김영희, 김유민, 김은경, 김재훈, 김중수, 김주희, 김지선, 김진소, 김진아, 김춘희, 김해용, 김현이, 김현정, 김혜숙, 김혜연엄마, 김혜진, 김희진, 나수연, 모명환, 모민희, 목현희, 문경순, 문숙희, 박경자, 박미나, 박선정, 박영란, 박옥선, 박우석, 박은선, 박은재, 박재준, 박정선, 박태선, 박현준, 방사무엘연상, 방인숙, 배길선, 백기범, 백윤수, 백일영, 변은숙, 서연자, 서진근, 석미영, 성세희, 성정숙, 손유진, 송기원, 송미란, 송수경, 송현주, 심소정, 심형준, 안상민, 양재승, 양준모, 오미영, 우남칠, 원호성, 유경화, 유기성, 유연숙, 유주영, 윤성현, 윤옥진, 이갑우(이종업), 이경재, 이광환, 이규강, 이규현, 이다영, 이승환, 이영희, 이영희, 이은우(이종업), 이은정, 이인숙, 이정숙, 이정순, 이종숙, 이종호, 이주현, 이철수, 인수진, 장수연, 정규성, 정서윤, 조길수, 조미영, 조형희, 지승연, 최문근, 최병숙, 최상민, 한경미, 현승준, 홍충란, 황은화, 황인희, 황정원, 황지율, 황한별		
2만원	강유미, 고형길(용천가스), 국아령, 권순호, 김규광, 김나원, 김라임, 김미숙, 김미희, 김선화, 김수경2, 김수현, 김영자, 김예나, 김왕배, 김인기, 김재실, 김중옥, 김지영, 김진희, 김현숙, 김현정, 김혜경, 김혜양, 나윤경, 남윤성, 노유원, 민주원, 박은령, 박은영, 박현아, 박현우, 박희옥, 배석진, 서연제(서정희), 석윤희, 양혜란, 유경아, 유기욱, 윤수한, 윤이승, 윤정애, 은종선, 이동구, 이명순, 이배환, 이상호, 이우미, 이윤선, 이지순, 이진희, 이현빈, 임재순, 임지선, 장미경, 장진희, 정광호, 정인호, 조달남, 조영우, 진정문, 최영애, 최인경, 하미경, 한상원, 한수영, 한윤혁, 한재원, 한정화, 한혜선, 현도윤, 홍영숙		
3만원	강진희, 고경민, 고애란, 김경숙, 김경희, 김광재(최은희), 김수연, 김지윤, 김현진, 김홍익, 박건희, 박성희, 박승원, 박유선, 박홍이, 송민정, 송시원, 신동성, 신형주, 유재덕, 이승순, 이은미, 이정원, 이채윤, 장현진, 정윤환, 주형준, 최병철, 최수영, 홍순명, 후원금(무기명)		
5만원	강창무, 구인옥, 김도연, 김은아, 김형기(김예준), 김혜림, 나옴선교회, 대한예수회, 동아스지, 등촌교회안나24전도회, 류인옥, 박민지, 신윤정, 신현주, 신희진, 양민열, 윤공심, 이승현, 창천교회병원봉사회, 후원금(무기명)		
10만원	(주)제이제이무역, 강명선, 고복희, 권순연, 기쁜소식교회, 김선희, 김영준, 남상언, 산돌교회, 송민선(박유진모), 신효명, 양현우, 이상호(이배영), 이지은, 장준영		
15만원	정만희	20만원	김미영, 이지은
25만원	배길선	30만원	이강준
40만원	(재)청아장학재단	50만원	배명자, 이은주, 한유진
100만원	유철주, 이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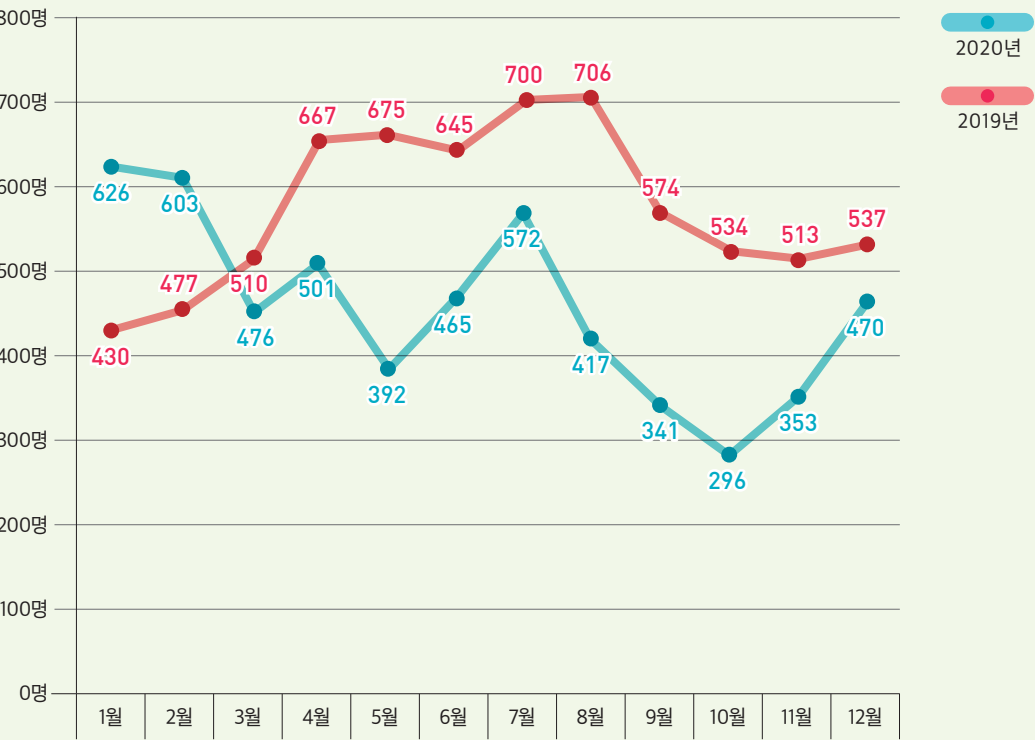
## 2. 일시후원회원

금액	후원자명	금액	후원자명
20,000	등촌교회사라전도회	705,200	본아이에프(주)
25,000	등촌교회안나, 등촌교회안나1,3	770,000	창천교회
30,000	강예준, 서복례, 양신영, 유승우, 이경민2, 정예찬, 이지우	860,000	사랑해요
50,000	박정호, 오승환, 윤서후, 이영빈, 이예림, 장한나, 허태웅, 전선유	1,000,000	김경흠, 백서준, (주)디자인스토리, 최재원, 고영범목사, 김현이, 박수영, 신형주, 최문근
100,000	김수현, 노영강, 이영준, 한은춘, 한태범, 감사합니다, 이승환, 윤이운	1,143,820	천사유치원
170,000	약속교회(조주용)	1,500,000	정진우
200,000	조예진, 이혜진	2,000,000	박유진, 연세미래지도자클럽, 장준영
230,000	이다근	3,200,000	늘해랑프로젝트
300,000	손오성	4,000,000	현금천사
330,000	신혜경	4,007,500	연세의료원
500,000	강민성, 김단중앙교회(백서윤), 김광범, 김영중, 전주동명교회	67,609,000	이씩희
		100,000,000	이은경

3. 한빛사랑하우스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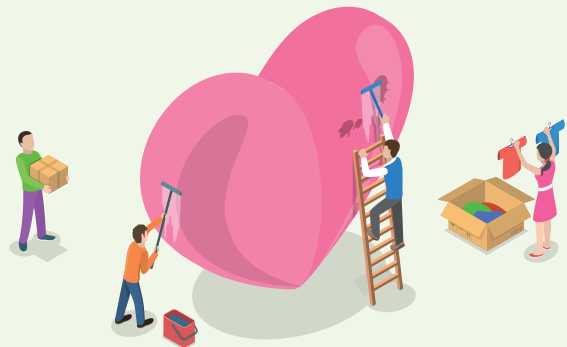
1. 2020년 이용현황 (1월~12월) (단위:일별 실인원 합계)

① 이용현황표



단위 :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환아	274	286	216	149	160	180	228	166	142	125	154	188	2,268
보호자	352	317	260	352	232	285	344	251	199	171	199	282	3,244
합계	626	603	476	501	392	465	572	417	341	296	353	470	5,512



2. 후원물품내역

1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죽50개,치킨1box,상품권50장), 삼성생명(키친타올,페브리즈,주방세제,방향제), 소아암재단(쌀40kg, 휴지,참치,칫솔,치약 등), 세브란스신협협동조합(참치세트 1개,당기머리삼푸2종 3개,홍삼3포,로봇청소기1개, 냄비세트 3종 2개,사과 1BOX,티세트,미니블렌더,도마4종, 목안마기,가습기,멀티쿠커,티메이커,낭만그릴,도자기그릇 14종,밀폐용기 7종, 연세프 로바이오틱스30개,후라이팬6개,스팀다리미,베게2,이불1), 공동종합사회복지관(테이블, 아동용비니, 장난감, 라틴바구니1box, 화과자,기저귀,속옷,선글라스,필통,가방 등), 강나경(한라봉2box)
2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죽50개,치킨1box,상품권50장),소아암재단(쌀40kg), 코코스타(면마스크,핸드팩,면수건)
3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치킨1box,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된장1kg,세이플핸드겔 1000ml 12개, 레미트 퍼펙트핸 드클린젤 50ml 30개, 후아키즈가드마스크 (프레임1개,필터3매Set)90set), 노유진 차(소형마스크30장)
4월	본사랑(쌀40kg,김치30kg,치킨1box,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소형마스크500장,소독겔45개,아이깨끗해54개,아토크 림39개,휴지26개,기저귀4box,CD96개,락티슈2개,분유5통,아이깨끗해12box,공책4box,물티슈5box,도서10권,로션워시삼푸크 림3box), 약속교회(감자1box),Elina Choi(소형마스크100장), 이다근(나물1box)
5월	본사랑(쌀40kg,김치30kg,치킨1box,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손소독제 200ml(54개)4box, 뽕피 찰떡파이 12갑(1갑 6 봉지)15box, 빼빼로(초코쿠키40갑/누드로즈블랙티40갑)각10box, 카스타드 카카오베리 12갑(1갑 4봉지)15box), 공동종합사회 복지관(랍스타 8box, 세탁세제 2box, 변기세정제, 먼지떨이리필용, 구강청정제, 휴대용린스+웨이스폼+트리트먼트,맥주2box), 더메리프로젝트 유산형대표(유한김벌리 KF94마스크(중형1개입)100개), 이혁(굴취2box), 태랑세랑마켓(네이버스토어팜)+치 료중인환아부모님(손소독겔 휴대용 케이스 120개)
6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치킨1box,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휴지(30롤)1묶음, 기저귀2묶음,키친타올(8롤)1묶음, 분 유2통,물티슈6개 1묶음,엑상분유 1Box),박건희(쌀20kg), 최유은(토마토1box), 박현석(마늘큰망자루)
7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치킨1box,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 한국기술사회(침구류), 약속교회(감자 2box), 김병섭 (옥수수 1box),
8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치킨1box,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 약속교회(옥수수 1box), 고정현(패션후르츠 1box), 공동 종합사회복지관(무말랭이 외 반찬 2box, 삼푸 200개, 화장품 630개)
9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치킨1box,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 임선우(마스크 415개), 본아이에프(쌀,세탁세제,섬유유 연제,세정제,유한락스,화장지,키친타올), 신협협동조합(식품,건강식품,조리도구,주방가전,생활용품 등 34개), 공동복지관(10kg 김치10box), (주)롯데호텔 롯데면세점 임직원(한혈증130장),세브란스어린이병원 봉사단 의료놀이키트(20개), 최수현 수제마 스크줄(100개)
10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치킨1box,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기저귀,휴지,키친타올,분유,각티슈,미용티슈), 김혜연(쌀 40kg), 김도호(감자 1box), 세브란스사회사업팀(마스크 16set, 후라이팬 3box,믹싱볼3box,밀폐용기2box), 한국기술사회(마스 크 대형 1200개,소형 1100개, 소형비말300개), 이정숙(새우젓,생새우,부추,알타리) 공동종합사회복지관(면마스크/필터 563개, 스파마스크/필터 600개)
11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치킨1box,상품권 50장,치킨도넛1box,만두2box,고추가루2봉,건조굴20box,굴통조림120개), 소아암 재단(쌀40kg,휴지,종이컵,기저귀,분유,물티슈,키친타올,이불,보리차), 한국기술사회(사과1box), 강나경(고구마1box), 양혜원(굴 1box), 공동종합사회복지관(김치10kg15box), 톤(ton)28 비누세트(50개), 아이들과미래재단 수제히크만주머니(100개)
12월	본사랑(쌀40kg,김치30kg,치킨1box,상품권 50장,김장김치15box,손소독제24개), 소아암재단(쌀40kg마스크,물티슈,검,몽헬,메 룡쿠키,도형퍼즐,신비아파트푸터북,빙글빙글자동차놀이), 황한별(재활용봉투10묶음,크린백), 강여민(굴4box), 이지은(성당선 물), 더메리프로젝트(포도씨유36개,파실16개,주방세제6개,아이깨끗해10set,커피5box,치약12개,칫솔5set,물티슈24개,밀가루15 개,키친타올4set,락티슈2set,휴지4set,초소형마스크290개,중형마스크90개,항균물티슈100개,소독클러너40box,장난감10종, 크리스마스선물100set), 세브란스어린이병원 봉사단 의료놀이키트(20개)





# 소아암 아이들의 썸사인 프렌즈가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2004년에 설립된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입니다.

●한빛은 병원 가까이에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를 마련하여

소아암 아이들의 통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한빛은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소아암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빛은 학습지도가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에게 학습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빛은 소아암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 나들이프로그램,

여름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잔치 등의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합니다.

## 회원 형태

개인후원자	매달 CMS 및 계좌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단체후원자	매달 혹은 일시적으로 단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물품후원자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물품, 식재료,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시는 분

## 후원 방법

### ① CMS 납부

홈페이지 가입	메인페이지 [후원하기] 혹은 [후원현황→후원신청→정기후원] 입력후 저장
후원신청서 작성	소식지내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FAX, E-mail, 우편으로 발송
전화 가입	소아암NGO한빛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을 요청

### ② 계좌이체 납부

은행 계좌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	------------------------------

### ③ 물품후원

한빛사랑하우스에 후원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하단의 하우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소아암NGO한빛

주 소 : (0378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 (창천동 53-60) 2층

연락처 : Tel : 02-3142-0675 / Fax : 02-3142-0670 / E-mail : hanbit\_2004@naver.com

※ '썸사인 프렌즈'는 소아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빛의 후원자입니다.



정회원

썸사인 프렌즈

## 정기후원(CMS) 신청서

### ■ 회원 정보

회원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체)		
성명		직장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 후원 금액

월 정기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CMS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CMS, 금융기관, 통신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며 후원자정보는 공익을 위해 타 NPO단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약관)에 동의하며,  
소아암NGO한빛의 정기후원(CMS출금이체)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포토에세이

# “그저 평범했던 그리운 날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자 건강을 염려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 2019년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세상속으로 나왔고

이젠 어딜가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하고,

정해진 인원외에 여러명이 모여서도 안됩니다.

그저 평범하게 마스크없이 걷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던 날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 다시 돌아올 평범한 날들을 기다립니다.